

‘연기’ 믿어야 공부할 수 있어

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한 마디에 깨달아 버립니다(言下大悟). 드물지만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옛날에도 얻기 어렵다고 하여 난득(難得)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부처님입니까?”라는 질문에 “뜰 앞의 잣나무다” “마른 똥 막대기다”라는 주관·객관이 끊어진 말을 들으면 딱 맞습니다. 이 막다른 순간에 주관과 객관이 확 무너지면서 깨닫게 됩니다. 육조스님께서 의발을 뺐으러 대유림까지 찾아온 도명 스님에게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너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명 수좌는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았습니다. ‘너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뜰 앞의 잣나무’나 ‘마른 똥 막대기’와 똑 같습니다. 그래서 도명 스님은 그 질문을 받는 순간에 주관과 객관이 딱 끊어지면서 바로 깨달았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아바타’의 경우처럼 힘으로 의발을 뺐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집착과 욕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무아의 지혜로써 해결합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세상을 외면하고 아무것도 안 가지는 것을 무소유라고 아는 것은 착각입니다. 부처님께서 늘 무아, 공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수달다 장자는 재산이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재산을 남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너는 더 가져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이나 출세, 권력을 아예 안 갖는 것이 무소유가 아닙니다. 내라는 생각이 없는 평상심을 깨달으면 밖으로 가지든지 갖지 않든지 서로 통하면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무소유는 ‘내’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 평상심입니다. 가져도 가져도 되는 생각이 없는 평상심으로 지혜롭게 잘 관리할 줄 아는 것이 무소유입니다. 밖의 것을 안 가지는 것이 무소유라면 다시 원시 시대로 돌아가자는 말입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무소유는 자기라는 생각에 집착 없이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불교는 ‘나’라는 집착이 없이 형편에 따라 있는 그대로 보면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무아(無我)를 알고 실천하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효과가 나옵니다. 형상은 달라도 본질이 다 평등하다고 알아서 비교를 안 하게 되고, 비교에서 오는 모든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됩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모양이 다르다고, 종교가 다르다고 우리는 얼마나 싸우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모양은 다르나 본질은 모두 하나입니다. 갈등·대립·투쟁은 자해 행위입니다. 본질을 알면 절대로 비교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둘째, 자기가 하는 일의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됩니다. 가치와 의미를 알면 하는 일이 즐거워서 열심히 하게 됩니다. 열심히 함으로써 전문가가 되고 전문가가 되니 남들에게 인정받고 존경 받는 사람이 되고 인격이 갖추어져서 모든 사람으로

부터 존경받는 어른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서 이런 훌륭한 어른이 많은 사회와 국가는 안정되고 좋은 사회이고 좋은 국가입니다.

셋째, 자주적인 사람이 됩니다. 안으로 자신의 욕망이나 외부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 당당히 살아 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넷째, 소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의 국제 사업 몇 가지가 정책을 세울 때는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계획했다가 오히려 정쟁(政爭)의 도구가 되어 국민을 얼마나 괴롭히게 하고 괴롭히고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소통 부재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정치권에서 소통부재의 소음이 국민을 정신적으로 얼마나 괴롭히고 있습니까? 진보든 보수든 국가와 국민을 잘 되게 하자고 만든 제도이고 수단입니다. 오직 목적은 국가와 국민을 잘 되게 하지는 것 하나 뿐임을 알면 수단이 목적이 되어서 안 됩니다. 수단은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정치권이 되어야 국민 세금으로 주는 세비를 받을 자격도 있고,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 하는 것입니다.

교통과 정보망이 발달해서 지구촌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다양한 문화가 충돌하지 않고 소통하는 일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형상만 보지 말고 본질을 보아서 모든 다른 것들이 하나이면서 둘이라는 것을 알면 자연스럽게 소통하게 됩니다. 이것을 선경에서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말합니다. 공이라고 해서 완전히 없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다. 거기에는 항상 역동적인 활발발(活潑潑)한 평상심이 있습니다. 인종 문제, 민족문제, 이데올로기 문제, 종교 문제 등등 지구상의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본 모습입니다. 갈등·대립·투쟁하는 모든 일들은 착각과 오해에서 나온 허구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잘못된 착각과 오해와 허구로부터 깨어나려면 오직 부처님께서 깨치신 본질을 체험해야 합니다. 본질을 체험하게 하는 방법 가운데 화두 참구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고 갈파(囑咐)했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가깝고 절실하게 꼭 알아야 할 화두가 ‘이 송장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입니다. 화두를 통하여 깨달으면 사람은 물론 동물과도 소통하고, 자연과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 이렇게 위대한 공부는 없다고 봅니다. 파급 효과는 이렇게 굉장하지만 화두를 참구하는 공부는 간단합니다.

존재와 비존재, 작용과 비작용, 이렇게 하나이면서 두면이 작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도인과 중생, 내 종교, 타 종교도 없습니다. 편리를 위해 방편으로 이를 지어놓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실사 우리가 송장 끌고 다니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본래 그 자리에서 보면 저 문 밖의 사람이요 불렀다고 하면 죽은 송장과 같다고 했습니다. 오직 손의 손등과 손바닥과 같이 살활(微活)이 있을 뿐입니다. 생명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것은 그렇게 존재할 뿐입니다. 거기서 ‘수행하라. 깨달아라’ 하는 것은 명정(冥正)한 맨살을 긁어 부스럼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정리=조동섭 기자



한국불교 승려열전

현대 한국불교의 또 다른 출발점, 운허

운허옹화(軒虛翁夏). 1892년 왕조의 막바지에 태어나, 망국의 아득함을 맛보고, 만주로 건너가 대동 청년단에 가입해 독립투쟁의 길에 나섰던 조선의 젊은이. 1921년 일제 경찰에게 쫓겨 숨어들었던 금강산 봉일사에서 부처를 만나 불자가 되고 말았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에게 불교는 운명이었다. <운허선사어문집>에는 다음과 같이 스님의 회고를 전한다.

“내가 중이 된 것은 30세 때였는데 만주에서 서울로 잡입해 들어왔더니 고향인 평안도 정주에서 형사가 쫓아왔다. 그래서 금강산으로 피신하다가 그 길목인 강원도 회양 땅에 봉일사란 절에 들른 것이 숙연이었던지 참말 중이 되었다.”

이후 20여 년, 부처를 보고 부처를 듣고



운허 스님(가운데)이 해인사 강사로 활동하던 시절인 1957년 해인사에서 찍은 사진.

경찰에 쫓겨 들어왔던 절집, 그 절집에서 만났던 광복이 기쁨에 겨웠건만. 세상은 아이러니하다. 스님의 곡절이 이 땅의 중생에게는 복이 되었다. 스님의 이후 30년이 부처와 이 땅의 중생이 만나는 가교를 놓는 세월이 되었다 까닭이다. 1961년 한국불교 역사상 우리 말 우리 글로 된 첫 번째 불교사전이 세상에 등장했다. 1964년 종립학교인 동국대학교에 역경원이 설립되고 원장에 취임했다. 1980년 11월 봉선사에서 입적하실 때까지 스님의 삶은 ‘한글역경’ 일로매진이었다. 스님이 가신 지 20여 년, 그리고 동국대 역경원에서 <고려대장경>의 한글역경 사업이 시작된 지 37년 만에 <한글대장경>은 318권으로 완간됐다. 스님의 원력으로 시작된 사업이 한국현대불교의 첫 반세기 동안에 완성된 것이다.

부처님 법음은 형상화된 몸짓, 곧 문자와 언어를 매개로 중생에게 이른다. 부처님

광동중 설립 인재발사... 첫 한글 불교사전 편찬

부처를 읽었다. 당대의 걸승이라 일컬어지던 월초(月初) 스님이 길라잡이였다. 월초 스님은 그가 경전에 몰두하는 데 뒷바라지를 마다하지 않았다. 한 문으로 된 경전을 제대로 읽을 줄 아는 이가 드물었던 시대, 타성에 물들지 않고 의지를 지닌 동량을 절집에서 만나기만 쉽지 않았던 까닭이다. 그는 이 시절 절집에 살기는 하되 부처님 말씀을 직접 보고 듣지 못하는 많은 이들을 만나게 된다. 이후 광복까지의 20여 년은 세상에 즐기 위한 기다림의 세월이었다.

운허옹화(軒虛翁夏). 그에게 있어서 삶은 해방공간에서 시작했다. 승려가 불보살이 중생에게 다가서는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망국의 한을 짊어지고 세상에 쫓겨 달아났던 절에서 부처를 만났던 이가, 나라 잃어 저마다 곡절을 안고 세상을 부유하던 중생들을 광복의 마당에서 만나러 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처음 제안한 해답은 교육이었다. 광동중학교 설립하고 인재발사에 나섰다.

하지만 중생이 부처를 만나기도 부처가 되기도 쉽지 않지만, 부처가 보살이 중생을 만나는 일도 또한 그러했다. 사연은 곡절을 만들고, 곡절은 다시 사연을 낳는다. 동쪽의 산간, 속가의 부인이며 가족을 잃었다. 또 부역자로 몰려 신고를 겪었다. 독립을 위해 집을 떠나고, 그 독립투쟁의 와중에 일제

말씀이 문자로 기록되고, 그 경전이 사막과 바다와 산과 강을 건너서 다른 세상에 전해졌을 때, 그 첫 번째 불사(佛事)는 언제나 경전의 번역이었다. 번역이 이루어지면 뜻뜻추기(格義)가 시작되고, 뜻뜻추기가 반복되면서 새로운 땅에 ‘부처가 되는 길’ ‘부처로 사는 길’이 열렸다.

이 땅의 불교역사가 1700여 년이나 되지만, 과거와 달리 현대 한국인들은 한글로 문자생활을 오로지하는 첫 번째 세대이다. 그 세대에게 한문은 남의 글일 뿐이다. 때문에 한문으로 된 우리 불전이 아니라 한글로 된 우리 불전을 만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은 부처님과의 대화를 시작한다. 우리는 한글로 부처님과 대화하는 첫 번째 세대이고, 뜻뜻추기를 반복하기 시작하는 세대이다.

현대 한국불교에서 한글이라는 새로운 문자로 부처를 만나는 큰 길이 운허 스님의 한글역경 사업에 대한 서원에서 비롯됐으니, 그가 현대 한국불교의 또 다른 기원이기도 한 셈이다. 한국 땅에서 만들어진 세 번째 대장경의 주인공, 한국 땅에서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과 글로 불교를 읽고 쓰게 한 주인공, 실은 현대 한국불교 전법(傳法)의 큰 줄기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 석길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교수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시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재혼 -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공함을 보고 공함이 좋은 아가씨 자택 방문하여 부모님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1통, 갑근제 증명1통, 전세 계약서 사본1통)

⇒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국제결혼 서류대행

1. 번역	3. 친지방문
2. 공증	4. 국적취득신청

상담 010-9955-9093

중년여성 일본 결혼 할 분

- 준비 비용 일체 일본에서 부담
1. 불자 보살님들 여러분이 인도하여 주시며, 형제같이 지낼 분
 2. 본인이 여러남자 선을 보고 자유로 선택하여 결정함.
 3. 3개월까지 무료 침식제공
 4. 일본은 불교국가라 불자 우대
 5. 우리도 넓은 세상을 바라봅시다.

불교가족 선남 선녀 짝 지어 주기

불교가족 중 과년한 선남·선녀들에게 한함, 재혼자 남·여 (가족 사항 자제히 기입 할 것)

- 신청 방법**
1. 명함만 사진 1매
 2. 자기 소개 이력서(상세히)
 3. 직장장택우무

자비회에서는 공함을 보아 좋은 커플을 소개 하오니 음력으로 년월일시를 정확히 기재 전등사 또는 서울사무소로 신청서류 보내세요.

담당스님 만 해 합장

◆ 담당 :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707자빌딩1505호(해피시티 내)

기적의 목· 어깨 전문 지압기 보급에 함께하실 전국 지역 총판 대표님을 모십니다

세계유일의 가정용
경추지압장치입니다.

사용 즉시 효과 100%

- 40,50경으로 어깨가 자주 결리고 아프신 분
- 목디스크 환자
- 운전 등으로 목이 자주 피로하신 분
- 수면자세가 불량하여 목이 불편하신 분
- 두통, 치통, 코막힘 등 얼굴과 머리부위 이상
- 테니스, 골프 엘보
- 악기 연주시 손가락 저림 현상을 느끼시는 분
- 목에 통증과 피로를 자주 느끼시는 분

지역 총판 특전

1. 무자본으로 40억
2. 소자본 무점포 사업
3. 마케팅 Tool 지원
 - e-마케팅지원 (검색광고지원)
 - (본사 사이트 매출 → 지역총판분배)
 - 팸플릿 / 리플렛 / 포스터지원
 - 판매메뉴얼제작 / 배포 → 방판사원 교육지원



- 특허등록출원 제2010-34096호
- 상표등록출원 제2010-39768호
- FDA등록출원
- 의장특허출원

The People for the human being
KUNHEUNGTECH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402-12 서도빌딩 5층
www.kun-heung.co.kr

전화 주시거나 방문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설명하여 드립니다.

상담 및 주문전화
02)2058-1482~3